**교제와 나눔**

**\*\*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\*\***

**ㆍ토요기도회:**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

**ㆍ다음 주일은 나라주일입니다.**

**ㆍ매일성경 11,12월호 받아가세요.**

**ㆍBIBLE 12:** 성경 흐름 정리,12주 과정

매주 목요일 19시, 디아코니직업학교 18번 교실

**ㆍ지난 주 방문:** 조하원/최나엘, 김재욱, 서연주

**ㆍ생일:** 백능현

**◆말씀일기 일정**

일/렘11:9-17 월/렘11:18-12:6 화/렘12:7-17 수/렘13:1-11

목/렘13:12-19 금/렘13:20-27 토/렘14:1-12 일/렘14:13-22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 & 성경 **(4)**장 통독

**(성경 200독 대행진: 136독)**

**◈예배위원 안내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10월 8일** | **10월 15일** | **10월 22일** | **10월 29일** |
| **예배기도** | 신형만 | 김좌겸 | 권순아 | 김평님 |
| **말씀일기** | 김다니엘 | 조선형 | 천춘자 |  |
| **안내위원** | 신형만, 예배부 |
| **헌금위원** | 권순아, 김평님 |
| **애찬봉사** | 밥상 둘 | 나라주일 | 밥상 셋 | 밥상 넷 |

35-41호 2017년 10월 8일



**“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"**(롬 1:17)

주일 1부예배: 12:15

주일 2부예배: 14:00

주일 유초등부 예배: 14:00

주일 청소년부 예배: 13:30

토요기도회: 07:00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

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

**담임목사/ 손교훈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협동목사/ 이광열** Mike Lee

☏ 0211-4166 3284 HP. 0157-7388 7498

**교육목사/ 이재용** HP. 0157-5346 6942

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

 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 **교회 주소Alte-Landstr. 179, 40489 Düsseldorf**

 **주 일 예 배**

오

인도: 손교훈 목사

|  |  |
| --- | --- |
| ※입례/Eingang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송영/Eingangs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찬양대 |
| ※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5장 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.…… | 다함께 |
| 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성시교독/Wechselwort ……………….. 교독문 32번 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......………… 310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함께 |
| 기도/Gebet ………….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신형만 장로 |
| 말씀일기/Bibeltagebuch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찬양/Loblied 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…………… | 김다니엘 집사찬 양 대 |
| 성경봉독/Text zurPredigt…............… 마태 24:29-51 …..….....……..….…. | 다함께 |
| 설교/Predigt ……………...…..… **확실한 것 세 가지** ........……………… | 손교훈 목사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76장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합심기도/Gebet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봉헌/Kollekte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 함 께인 도 자다함께 |
|  교제와 나눔/Bekanntmachung ……............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| 인 도 자 |
| ※주기도송/Vaterunser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축도/Segen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 | 손교훈 목사 |

**※는 함께 일어섭니다.**

**◈ 김다니엘 집사의 말씀일기 렘11:1-8 왕이신 하나님** **◈**

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무지개처럼 드리우는 말씀이시다. 구약에서 수도없이 나오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동시에 앞으로 올 예언의 말씀이시기도 하다.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써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.

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곳, 통치하시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이다.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 나라, 천국, 하늘나라, 영생 등으로 성경에서는 사용된다. 다 동일한 뜻을 가진 말씀이다.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 가시고 인간인 우리는 그 나라에 조금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. 인간은 오직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.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,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.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이끄시고 백성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.

이렇게 정리를 하고나서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. 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써 어떻게 내 삶을 살고 있을까?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나 하는 문제를 늘 생각한다. 정말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나를 비추어보면,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면목도 없고 죄 투성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하곤 한다.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의 태도, 나의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삶의 자세가 내 속사람에 얼마나 뿌리깊게 내려 있는지 모른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,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돌이켜 주시고, 거기다 더해서 더 말할 나위 없는 무한한 사랑을 해 주신다.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. 나에게 의를 알게 하시고, 죄를 알게 하시고, 심판을 알게 하신다.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, 나의 그 모든 필요를 늘 채워 주신다.

‘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,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’라는 다니엘의 세친구의 말은 이 순간에도 나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시다.